http://dx.doi.org/10.35704/YJH.61.1

백하(白下) 윤순(尹淳)의 산수 공간 인식과 그 의미*

김묘정**

- 목 차 -

Ⅰ. 머리말
Ⅱ. 백하의 삶과 문집 검토 및 산수시 개관
Ⅲ. 백하의 산수 공간 인식 양상과 그 의미
Ⅳ.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白下 尹淳(1680~1741)의 山水詩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백하가 지니고 있던 산수 공간 인식과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산수 공간으로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한 것은 우선 백하의 시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공간이 3곳으로 대별되며, 그 공간이 모두 산수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2장에서는 백하의 삶과 산수시를 개관하고 공간별로 산수시를 분류하였는데, 이는 백하의 산수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1079180).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조교수

어서 3장에서는 백하의 산수 공간 인식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첫 번째로는 백하가 1715년에 방문한 金剛山이라는 공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의 금강산 유람은 당시 성행했던 유람 양상 중 하나인데, 특징적인 면모는 백하가 금강산을 신선 세계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여타 산수시에서는 이와 같은 양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직 금강산이라는 공간만을 '仙山'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는 同遊 체험 공간으로서의 俗離山과 시적 형상화 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백하는 1716년에 속리산을 유람했으며 여러 편의 유산시를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특징적인 양상은 백하가 유람한 속리산이 同遊 체험 공간으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백하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피되, 동시기 백하와 同遊한 澹軒 李夏坤(1677~1724)의 작품을 함께 분석하였다. 내용적으로는 주요 사찰들이나 승려와의 기록이 주를 차지하며, 작품에 佛界에 대한 묘사가 되어있다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는 관직 사직 후, 은둔 공간으로의 白鶴山을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백하는 1723년 탄핵을 받고 사직한 뒤 백학산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그 당시 백하의 처지와 맞물려 백학산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의 호가 白下인 만큼 그의 삶에서 이곳은 관직 사직 후 짧은 기간이지만 은둔의 장소이자 삶에서 중요한 기점이 된 공간임을 밝혔다.

이 글은 백하의 삶에서 의미를 지니는 3곳의 산수 공간을 심층적으로 확인하여 산수 공간 인식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산수 문예 의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백하 시세계의 한 부분을 이해하는 동시에 문학적 능력을 파악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백하 윤순, 산수시, 공간, 금강산, 속리산, 백학산

I. 머리말

이 글은 白下 尹淳(1680~1741)의 山水詩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1] 백하가 지니고 있던 산수 공간 인식과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산수 공간으로 분류하여 산수시를 살피고자 한 것은 우선 백하의 시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공간이 3곳으로 대별되며, 그 공간이 모두 산수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산수시의 특성상 산수 문예 의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백하의 산수 공간 인식을 살피는 작업은 그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의 문학적 능력을 파악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먼저 백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백하는 기존까지 주로 서예가로서의 면모만이 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書法, 書藝術, 書藝美學 측면에서 상당 부분 연구가 축적되었다.[2] 그러나 그 외의 방면에서 백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백하의 경세론에 나타난 양명학적 사유를 살핀 연구 1편이 확인되며,[3] 시문학

---

1) 이 글에서 山水詩는 山水를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을 지칭한다. 自然 전체를 소재로 삼은 작품은 차치하고 특정한 산수 공간에서 창작된 시만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여기서는 自然詩란 田園詩, 山水詩, 田家詩의 개념을 통칭한다고 파악한 남재철의 장르 구분을 따르고자 한다.(남재철, 「自然詩의 意味와 韓國에서의 展開樣相」,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103~135쪽.) 이 글은 산수시를 대상으로 하여 백하의 산수 공간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된 글이므로 "공간"에 초점을 맞춰 산수시를 살펴보고자 하기에 산수시를 자연시 아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여 협의적 측면에서 산수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했음을 밝힌다.

2) 이완우, 「白下 尹淳과 中國書法」, 『美術史學硏究』 206, 한국미술사학회, 1995, 29~54쪽; 박명숙, 「白下 尹淳 書藝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79쪽; 이재남, 「白下 尹淳의 書藝美學思想 考察」,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86쪽; 조민환, 「백하 윤순의 서예미학에 관한 연구 -時體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3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371~398쪽; 문정자, 「白下 尹淳과 圓嶠 李匡師의 審美理想과 書藝術」, 『東洋學』 4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8, 137~157쪽; 장지훈, 「尹淳의 心學的 서예미학에 관한 연구」, 『儒學硏究』 2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0, 141~168쪽; 김서형, 「白下 尹淳 書藝美學의 批評的 考察」,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77쪽; 류소애, 「백하 윤순의 서예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60쪽; 장순영, 「白下 尹淳 書藝術 硏究」,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51쪽; 전복희, 「白下 尹淳 書藝術의 審美思想 硏究」,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188쪽.

세계 고찰과 관련해서는 백하의 생애를 언급한 후 시세계를 비롯해 書論과 書體의 특징을 살핀 석사학위논문 1편만이 확인되는 실정이다.[4]

백하의 문학세계를 다룬 유일한 선행연구인 손왕호 논문의 경우 기존까지 언급된 바 없는 윤순의 시세계를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자연에의 동경으로 나누어 살폈다는 점에서 일면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서예가로서의 면모를 함께 담아내다 보니, 시 작품 몇 수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가 소략하다고 하겠다. 이에 최근에는 백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白下先生遺稿』와 『白下集』을 대조·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백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겠다.[5] 筆寫本인 『백하선생유고』와 石印本인 『백하집』이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논증했으며 후속 연구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전히 백하에 대한 선행연구는 서예가로서의 면모만을 부각시켰으며, 그의 문집 분석에 치우쳐졌다는 점에서 시문학 세계를 파악하는 데 미진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기존에 소략하게 다뤄진 백하의 시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특징적인 양상인 산수시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2장에서는 백하의 삶과 산수시 개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백하의 전체 문집 검토가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이루어졌으므로 이 글에서는 산수시를 추출하는 작업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산수시라고 볼 수 있는 시를 모두 추출해 작시 공간을 분류함으로써 백하의 산수시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단, 이 글에서는 우선 石印本이자 한국문집총간 192권에 수록된 『백하

3) 한정길, 「白下 尹淳의 경세론에 나타난 양명학적 사유」, 『泰東古典硏究』 3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3, 155~179쪽.
4) 손왕호, 「白下 尹淳 硏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56쪽.
5) 윤재환, 「백하 윤순 문집 검토 -『백하선생유고』와 『백하집』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62, 동양한문학회, 2022, 173~205쪽.

집』 만을 대상으로 한정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筆寫本인 『백하선생유고』와 石印本인 『백하집』에 수록된 산수시에 대한 비교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자, 향후 후속 논문을 견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라고 하겠다.[6]

이어서 3장에서는 백하의 산수 공간 인식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첫 번째로는 1715년에 방문한 金剛山이라는 공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금강산에 대한 유람은 고려말부터 진행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당시 문인들이 東遊記나 金剛山錄 외에도 다수의 詩 작품을 창작하였다.[7] 이에 1장에서는 주로 백하가 金剛山을 유람하며 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同遊 체험 공간으로서의 俗離山과 시적 형상화 양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백하는 1716년 李夏坤과 함께 俗離山 유람을 하였는데, 그 당시 이들이 속리산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작품을 창작하였는지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백하가 속리산에서 창작한 작품과 이하곤의 『頭陀草』에 남아있는 작품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관직 사직 후, 은둔의 공간으로서 白鶴山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백하는 1723년 탄핵을 받고 사직한 뒤 백학산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그 당시 백하의 처지와 맞물려 백학산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여긴다. 그의 호가 白下인 만큼 백학산은 관직 사직 후 은둔의 장소이자 그의 삶에서 중요한 기점이 된 공간이라고 여겨진다.

---

6) 1차적으로 筆寫本인 『白下先生遺稿』와 石印本인 『白下集』이 모두 변역된 바 없으므로 그의 시문학 세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첫 연구의 시작점을 石印本인 『백하집』에 두고 백하의 산수시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함을 밝힌다.

7) 심경호, 「한국한시와 금강산 ; 조선후기 문인의 동류 체험과 한시」, 『한국한시연구』 6, 한국한시학회, 1998, 54~55쪽.

Ⅱ. 백하의 삶과 문집 검토 및 산수시 개관

이 장에서는 白下 尹淳(1680~1741)의 삶을 살펴본 뒤 문집 속에 담긴 山水詩를 개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백하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관직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의 생애 속 관직을 면밀하게 살피고[8] 시기별로 백하가 머물렀던 산수 공간을 나열해보고자 한다. 그 이후에는 『白下集』에 수록된 山水詩를 살펴봄으로써 연구 대상 자료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백하의 본관은 海平이며, 자는 仲和, 호는 白下, 鶴塗, 蘿溪, 漫翁이다. 또한 백하는 霞谷 鄭齊斗(1646~1736)에게 受學하였다.[9] 백하는 1680년(숙종6) 鄕校洞에서 태어났으며 1689년(숙종15)에 부친상을 당했다. 또한 1713년(숙종39)에 殿試 丙科로 합격하였고, 이후 1715년(숙종41)에 金剛山을 방문하고 1716년(숙종42)에 副修撰을 지내는 동시에[10] 俗離山을 유람한 것으로 보인다. 1717년(숙종43)에는 弘文錄에 들었으며 江西 縣令이 되었다. 1719년(숙종45)에는 모친상을 당했다.

1721년(경종1)에는 校理가 되었고[11] 1722년(경종2) 北評事를 지냈으며 헌납, 교리, 부교리, 수찬, 이조 좌랑을 역임하였다.[12] 1723년(경종3)에는 교리가 되었으나[13] 이후 파직되었는데 이 당시 白鶴山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1724년(경종4)에는 집의, 부응교, 사간에 제수되었으나[14] 모두 나가

8) 백하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문집총간 해제를 참고하되, 조선왕조실록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생애를 구체적으로 고증하였다.

9) 尹淳, 『白下集』 卷9, 「祭霞谷鄭先生齊斗文」, "出入門牆, 餘四十載, 雖不能仰高鑽堅, 窺測其一二, 若其俯仰屈伸, 粗立於名教之內, 罔非依藉於先生之風旨."

10) 『肅宗實錄』 57권, <숙종 42년 6월 22일 경술 2번째 기사>.

11) 『景宗實錄』 5권, <경종 1년 12월 7일 계해 1번째 기사>.

12) 『景宗實錄』 6권, <경종 2년 2월 6일 신유 2번째 기사>, <경종 2년 2월 22일 정축 1번째 기사>, <경종 2년 3월 21일 병오 1번째 기사>, 『景宗實錄』 7권, <경종 2년 4월 21일 을해 1번째 기사>, 『景宗實錄』 9권, <경종 2년 8월 2일 을묘 1번째 기사>.

13) 『景宗實錄』 11권, <경종 3년 1월 16일 병신 2번째 기사>.

지 않았고, 이후 水原府使가 되었다가 체직되었다.[15]

1725년(영조1)에는 實錄兼春秋, 承旨, 大司成, 副提學을 지낸 바 있으며[16] 이후 1727년(영조3)에는 副提學, 大司憲, 藝文官提學, 吏曹 參判이 되었다.[17] 1728년(영조4)에는 호조 참판[18]을 지냈으며 이후 도승지[19]를 역임하였다. 그 해 이조 판서가 되었고 이후 冬至正使를 지냈으며 判尹을 역임했다.[20] 1729년(영조5)에는 공조 판서가 되었으며 이후 知經筵事를 지냈다.[21] 1730년(영조6)에는 예조 판서, 平安道觀察使를 역임했으며 이후 工曹 判書가 되었다가 判義禁으로 승진하였다.[22] 1731년(영조7)에는 우참찬, 한성부 판윤을 지냈다.[23] 1732년(영조8)에는 좌참찬, 판의금부사를 지냈으며 이후 함경 감사가 되었으나[24] 나아가지 않았다. 1733년(영조9)에 형조 판서로 부임했으나 체차되었고, 이후 예문관 제학, 형조 판서, 우참찬, 좌참찬을 지냈다.[25] 1734년(영조10)에는 예조 판서, 판의금, 양관 대제학을 역임했다.[26] 1735년(영조11)에는 공조 판서를 지냈으며[27] 1736년(영조12)

---

14) 『景宗實錄』 14권, <경종 4년 1월 12일 정해 4번째 기사>, <경종 4년 2월 30일 갑술 3번째 기사>, <경종 4년 4월 13일 병진 1번째 기사>.
15) 『景宗實錄』 15권, <경종 4년 6월 14일 을유 1번째 기사>, <경종 4년 8월 11일 신사 1번째 기사>.
16) 『英祖實錄』 2권, <영조 즉위년 11월 11일 신해 3번째 기사>, <영조 즉위년 11월 16일 병진 3번째 기사>, <영조 즉위년 11월 23일 계해 1번째 기사>, <영조 즉위년 12월 2일 신미 2번째 기사>.
17) 『英祖實錄』 12권, <영조 3년 7월 1일 을묘 20번째 기사>, <영조 3년 7월 22일 병자 1번째 기사>, <영조 3년 9월 9일 임술 6번째 기사>, <영조 3년 10월 9일 신묘 2번째 기사>.
18) 『英祖實錄』 16권, <영조 4년 3월 14일 갑자 1번째 기사>.
19) 『英祖實錄』 16권, <영조 4년 3월 14일 갑자 3번째 기사>.
20) 『英祖實錄』 18권, <영조 4년 5월 25일 을해 1번째 기사>, <영조 4년 6월 24일 계묘 2번째 기사>, <영조 4년 8월 28일 병오 1번째 기사>.
21) 『英祖實錄』 20권, <영조 4년 11월 4일 경술 1번째 기사>. 『英祖實錄』 22권, <영조 5년 6월 14일 정해 1번째 기사>.
22) 『英祖實錄』 25권, <영조 6년 4월 7일 갑진 1번째 기사>, 『英祖實錄』 26권, <영조 6년 5월 29일 병신 2번째 기사>, 『英祖實錄』 27권, <영조 6년 8월 2일 무술 2번째 기사>.
23) 『英祖實錄』 30권, <영조 7년 8월 4일 갑오 4번째 기사>, <영조 7년 10월 25일 을묘 1번째 기사>.
24) 『英祖實錄』 32권, <영조 8년 12월 7일 경신 2번째 기사>.
25) 『英祖實錄』 34권, <영조 9년 5월 12일 임진 1번째 기사>, 『英祖實錄』 35권, <영조 9년 7월 6일 을유 3번째 기사>, <영조 9년 9월 1일 기묘 1번째 기사>, 『英祖實錄』 36권, <영조 9년 11월 1일 무인 3번째 기사>, <영조 9년 12월 21일 무진 1번째 기사>.
26) 『英祖實錄』 37권, <영조 10년 3월 12일 무자 6번째 기사>, 『英祖實錄』 38권, <영조 10년 4월 11일

에는 판의금, 좌참찬, 형조 판서, 판윤 겸 판의금을 두루 지냈다.[28] 1737년(영조13) 공조 판서, 형조 판서, 판의금, 우참찬이 되었고[29] 이후 예조 판서가 되었으나 파직되었다.[30] 또 수어사, 공조 판서, 知經筵事를 역임하였다.[31] 1738년(영조14)에는 좌참찬, 좌빈객을 지냈으며,[32] 예문관 제학[33]이 되었다가 체직되기도 하였다. 이후 판의금부사, 예조 판서를 역임하였다.[34] 1739년(영조15)에는 예조 판서 판윤을 지냈으며,[35] 1740년(영조16)에 예조 판서와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했다.[36] 이후 백하는 1741년(영조17) 병이 깊어져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났다.[37]

(1)

평안 감사 尹淳이 세상을 떠났다. 윤순은 마음이 깨끗하고 단아하여 文辭에 능하였으며, 筆法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서 사람들이 그의 필법을 본받는 이가 많았다. 이 때에 이르러 巡視하던 도중 碧潼에 도착하여 졸하였다.[38]

병진 2번째 기사>, 『英祖實錄』 39권, <영조 10년 9월 2일 갑술 2번째 기사>.

27) 『英祖實錄』 40권, <영조 11년 1월 13일 갑신 1번째 기사>.

28) 『英祖實錄』 41권, <영조 12년 2월 4일 무진 5번째 기사>, <영조 12년 2월 20일 갑신 3번째 기사>, 『英祖實錄』 42권, <영조 12년 8월 16일 정축 3번째 기사>, <영조 12년 10월 27일 정해 2번째 기사>, <영조 12년 12월 2일 신유 5번째 기사>.

29) 『英祖實錄』 43권, <영조 13년 2월 13일 신미 2번째 기사>, 『英祖實錄』 44권, <영조 13년 6월 4일 신유 3번째 기사>, <영조 13년 6월 10일 정묘 3번째 기사>, <영조 13년 6월 22일 기묘 3번째 기사>.

30) 『英祖實錄』 44권, <영조 13년 7월 22일 무신 1번째 기사>, 『英祖實錄』 45권, <영조 13년 8월 11일 정묘 4번째 기사>.

31) 『英祖實錄』 45권, <영조 13년 9월 14일 기해 3번째 기사>, <영조 13년 9월 24일 기유 2번째 기사>, 『英祖實錄』 46권, <영조 13년 12월 21일 갑진 1번째 기사>.

32) 『英祖實錄』 47권, <영조 14년 1월 24일 정축 2번째 기사>, <영조 14년 2월 30일 임자 1번째 기사>.

33) 『英祖實錄』 47권, <영조 14년 5월 12일 계해 1번째 기사>.

34) 『英祖實錄』 47권, <영조 14년 6월 12일 계사 1번째 기사>, <영조 14년 6월 21일 임인 2번째 기사>.

35) 『英祖實錄』 50권, <영조 15년 8월 10일 갑신 1번째 기사>, <영조 15년 9월 12일 병진 2번째 기사>.

36) 『英祖實錄』 52권, <영조 16년 10월 6일 계묘 3번째 기사>, <영조 16년 11월 22일 기축 1번째 기사>.

37) 『英祖實錄』 53권, <영조 17년 3월 27일 임진 5번째 기사>.

38) 『英祖實錄』 53권, <영조 17년 3월 27일 임진 5번째 기사>.

(2)

문장을 짓는데 있어서는 육경을 근본으로 하고 백가를 꿰뚫었으며, 문은 사마천의 사기와 한서의 법을 따라 체재가 단정하고 전중했으며 안배함이 간단 엄정하여 한 자라도 가볍게 쓰지 않았으니 비록 赫蹄의 미미한 것이라도 표현한 것이 속됨에 가깝지는 않았다. 시는 두보에 능하여 뜻이 원대하고 아취가 지속되어 맛이 있었다.[39]

다음으로는 백하가 시문학에 있어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백하의 경우 시문학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英祖實錄』과 「行狀」을 통해 유추해보고자 한다. 인용문 (1)을 보면, 백하의 심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서예가로 명망을 얻은 만큼 筆法이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文辭에도 능했다라는 언급을 보았을 때 백하가 일면 문인으로도 인정받았음을 볼 수 있다. 인용문 (2)에서는 詩文에 대한 백하의 문학적 지향점을 엿볼 수 있는데, 육경과 백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마천의 사기와 한서를 따랐기에 자잘한 서간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장에 체재와 법도가 지켜졌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에 있어서는 두보를 따랐다고 한 것으로 보아 唐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했음을 엿볼 수 있겠다. 위 인용문은 백하가 스스로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평가를 통해 보았을 때 그가 시문학 창작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을 창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9) 尹淳, 『白下集』 附錄, 「行狀」, "其爲文章, 本源六經, 貫穿百家, 文之以史漢之法, 體端典重, 排布簡嚴, 一字不輕下, 雖赫蹄之微, 色不近俗. 詩則工於老杜, 意遠趣長, 雋然有味."

<표 1> 石印本『白下集』수록 작품 현황[40]

문집 편제		수록 내용	문집 편제		수록 내용
1책	1卷	五言絶句 4제 4수, 五言律詩 25제 27수,七言絶句 29제 46수, 七言律詩 52제 56수, 五言古詩 11제 11수, 七言古詩 5제 5수	4책	9卷	頒敎文 3편, 敎書 2편, 祭文 16편
	2卷	疏 10편		10卷	序 3편, 記 1편, 跋 7편
				11卷	雜識 10조목
	3卷	疏 13편		12卷	簡牘 18편
2책	4卷	疏 21편	부록		敎諭書 2편, 祭文 9편, 行狀 1편
	5卷	疏 17편			
3책	6卷	墓表 10편			
	7卷	墓誌銘 5편, 墓碣銘 1편, 神道碑銘 1편			
	8卷	家狀 2편, 行狀 1편, 諡狀 3편			

이어서『白下集』수록 작품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문집을 살펴보면 詩文을 다양하게 창작하였는데,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詩 작품은 모두 1卷에 수록되어 있으며 총 126제 149수의 작품을 지었음을 볼 수 있다. 양적으로 많은 작품이 수록된 것은 아니나 형식별로 五言絶句 4제 4수, 五言律詩 25제 27수, 七言絶句 29제 46수, 七言律詩 52제 56수, 五言古詩 11제 11수, 七言古詩 5제 5수가 확인된다. 문집 편제를 보면 시기순이 아닌 시체별로 차례로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상정한 石印本인『백하집』은 筆寫本인『백하선생유고』와 수록 작품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41]『백하선생유고』를 대상으로 삼아

40)『白下集』수록 작품들에 대한 논의는 윤재환의 논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윤재환,「백하 윤순 문집 검토 -『백하선생유고』와『백하집』의 분석을 중심으로-」,『동양한문학연구』62, 동양한문학회, 2022, pp.180~183.

41)『백하선생유고』에 수록된 작품은 총 468제 698수로 확인되므로 더욱 풍부한 시세계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윤재환,「백하 윤순 문집 검토 -『백하선생유고』와『백하집』의 분석을 중심으로-」,『동양한문학연구』62, 동양한문학회, 2022, 185쪽 참조.

시세계를 살피는 연구는 추후 다음 연구에서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표 2> 石印本『白下集』수록 山水詩 현황

순번	작품명	공간	수록권	형식
1	飛來峯	平安北道 소재 산	1卷	五言絶句
2	三日浦	금강산	1卷	五言律詩
3	新峙, 丙申九月, 自常山縣衙, 約澹軒李載大, 同入俗離山, 李生坐坤從焉	속리산	1卷	五言律詩
4	山中九日		1卷	五言律詩
5	次李載大韻		1卷	五言律詩
6	淸凉窟, 又次李載大韻		1卷	五言律詩
7	上獅子		1卷	五言律詩
8	示李載大		1卷	五言律詩
9	風月亭, 次澹軒李載大開字		1卷	五言律詩
10	結屋白鶴山下	백학산	1卷	五言律詩
11	蘿山, 次主人韻		1卷	五言律詩
12	遊金剛, 出東門	금강산	1卷	七言絶句
13	長安外村, 水石甚佳		1卷	七言絶句
14	向萬瀑洞, 至眞珠潭		1卷	七言絶句
15	正陽寺, 過金城使君洪汝吾, 聞郡齋酬唱韻, 臨別, 次贈		1卷	七言絶句
16	正陽寺夜雨		1卷	七言絶句
17	九龍淵 三首		1卷	七言絶句
18	白蓮菴, 贈瑛師	속리산	1卷	七言絶句
19	歸白下	백학산	1卷	七言絶句
20	失靑鶴復得白鶴喜而志之		1卷	七言律詩
21	趙令君錫 景命 解籍, 歸廣陵, 過余兄弟白下山居, 其季穉晦 顯命 隨焉, 徐平甫亦自蘿山來會, 落落之餘, 其喜可知, 座中拈唐人韻, 各賦以識之		1卷	七言律詩
22	歸山下, 疊年字志感, 上伯氏		1卷	七言律詩
23	白下山居, 別湖南伯徐溫叔, 宗玉		1卷	七言律詩

이에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白下集』에 수록된 山水詩 현황을 정리해보면, 『白下集』에 수록된 총 126제의 작품 가운데 23제의 작품을 산수시라는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겠다. 양적으로 보면 18%에 해당하는데, 정확하게 시제나 내용에서 공간을 비정할 수 없는 작품은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표를 살펴보면, 시기순으로 작품이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체별로 공간을 분류할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정리해보면 공간은 크게 총 3곳으로 대별되는데, 첫 번째로, 금강산을 유람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주로 七言絶句 형식으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俗離山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작품이 창작되었는데, 五言律詩 형식으로 작시 된 시가 대다수이며 七言絶句 작품도 확인된다. 세 번째로는, 백학산이 주요 산수 공간으로 확인되는데, 대체로 五言律詩, 七言律詩 형식으로 창작되었기에 絶句보다는 律詩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특정 공간에서 선호한 시체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공간별로 시체를 분류해 창작하지는 않았으므로 다양한 형식을 활용해 시를 창작했다고 생각된다.

Ⅲ. 백하의 산수 공간 인식 양상과 그 의미

1. 金剛山 유람과 신선 세계로의 인식

金剛山은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조선시대의 금강산 유람은 당시 성행했던 유람 양상 중 하나이다. 백하 역시 1715년 금강산을 한 차례 유람한 것으로 확인되며, 한시 작품이 남아있어 그가 금강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유람과 관련하여 遊山記 형식의 별도의 산문이

없어 유람 동기와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한시 작품을 통해 산수 공간 인식 양상을 유추해보는 작업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특징적인 면모는 백하가 금강산을 신선 세계로 인식했다는 것인데, 여타 산수시에서는 이와 같은 양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직 금강산이라는 공간만을 '仙山'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에 유람 공간을 따라 백하가 창작한 작품을 살핌으로써 백하의 산수 공간 인식 양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1)

發願金崗萬二千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 발원하였으니
俗緣磨盡卽仙緣　세속의 인연 모두 사라지고 신선의 인연 맺었네
裝囊斷出東門路　행장을 꾸려 단출하게 동문 길을 나서니
海上毗盧便馬前　동해의 비로봉 곧 말 앞에 펼쳐지네[42]

(2)

板瓦鱗鱗老樹前　오래된 나무 앞 비늘 같은 푸른 기와집
望中幽興一翩然　바라보는 가운데 그윽한 흥이 한 번 일어나네
風烟已與仙山近　풍광이 이미 신선 산에 가까워진 듯한데
石白沙明是別天　돌은 희고 모래는 밝으니 별천지라네[43]

먼저 살펴볼 작품(1)은 <遊金剛 出東門>으로 금강산을 유람하고자 동문을 나서는 여정이 담겨 있는 동시에 금강산을 신선 세계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기구는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우리를 읊은 것이며 승구는 금강산을 세속의 인연이 모두 끊기고 신선의 인연이 맺어지

42) 尹淳, 『白下集』 卷1, <遊金剛 出東門>.
43) 尹淳, 『白下集』 卷1, <長安外村 水石甚佳>.

는 공간으로 묘사한 것이다. 전구에는 금강산 유람에 나선 백하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간편하게 행장을 꾸려 동문 길을 나서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동해의 毗盧峯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작품(2)를 살펴보면, 이 시는 <長安外村 水石甚佳>로 장안마을 밖에서 물과 돌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것인데, 금강산 長慶峯에 있었던 사찰인 長安寺로 향하는 여정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기구와 승구는 장안에서 오래된 나무 앞에 있는 비늘처럼 반짝이는 기와를 바라보며 느낀 감회를 말한 것이다. 다음으로 전구와 결구를 살펴보면, 백하가 금강산이라는 공간을 신선 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흰 돌과 밝은 모래를 포착하며 이러한 공간을 별천지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第一金剛萬瀑洞　금강산에서 제일가는 만폭동
蓬萊筆力與爭雄　봉래 양사언의 필력 영웅을 다투었는데
百年人不此間翫　백 년 인생의 사람들 이 사이에서 완상하니
死去生來都是空　살고 죽는 것 모두 허무하구나[44]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向萬瀑洞 至眞珠潭>으로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만폭동에서 진주담에 이르기까지의 유람 여정 속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만폭동은 내금강의 상봉인 毗盧峯과 衆香城 일대의 물이 모이는 아름다운 곳이자 蓬萊 楊士彦(1517~1584)이 새겨 둔 '蓬萊楓岳元化洞天'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명승지라고 하겠다. 이 시는 만폭동의 勝景을 읊는 동시에 '蓬萊楓岳元化洞天'라는 글씨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곳이 신선 세계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元化'는 천지의 조화를 의미하고 '洞天'은 신선이 사는 곳을 의미하기에 이 공간에 당도한

44) 尹淳, 『白下集』 卷1, <向萬瀑洞 至眞珠潭>.

윤순은 금강산을 신선 세계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구와 결구에서는 인간 세계와의 대비를 통해 삶의 허무함을 읊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

昨過琴軒意悵然　어제 琴閣을 지나니 마음 서글픈데

披襟獨自對南川　옷깃 열고 홀로 남천을 마주하네

蓬萊仙賞殊先後　봉래산의 신선 경치 빼어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又送君行萬瀑前　만폭동 앞에서 또다시 그대를 전송하는구나[45]

(2)

煙雲一色茫無際　안개와 구름 한 빛깔로 합쳐져 아득히 끝이 없으니

萬二峯巒何處高　일만 이천 봉우리 어느 곳 높이 있는가

不省正陽寺裡坐　정양사 속에 앉은 것 깨닫지도 못한 채

怳疑滄海聞風濤　창해에서 파도 소리 듣는 것인가 하네[46]

위 작품들은 내금강의 表訓寺 북쪽 放光臺 중턱에 위치한 정양사에서 창작된 것이다. 작품(1)은 <正陽寺 過金城使君洪汝吾 聞郡齋酬唱韻 臨別次贈>이며, 작품(2)는 <正陽寺夜雨>이다. 대체로 금강산 유람 과정에서 창작된 작품을 보면, 당시 사대부들이 주로 방문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작시 된 경향을 보이는데[47] 백하 역시 여러 문인이 필수적으로 방문했던 정양사를 유람하고 두 수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작품(1)은 기본적으로 이별

45) 尹淳, 『白下集』 卷1, <正陽寺 過金城使君洪汝吾 聞郡齋酬唱韻 臨別 次贈>.

46) 尹淳, 『白下集』 卷1, <正陽寺夜雨>.

47) 정치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 중의 활동」, 『역사민속학』 4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41쪽. 금강산의 경우 長安寺, 表訓寺, 正陽寺, 楡岾寺, 보덕굴 등의 사찰과 萬瀑洞, 鳴淵, 隱仙臺, 三日浦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주로 창작되었다.

의 과정에서 작시 된 것이므로 송별의 정한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에 시를 살펴보면, 기구와 승구를 통해 백하가 이별한 뒤에 서글픈 마음으로 홀로 남천을 마주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구에서는 신선 경치를 머금은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읊고 있는데, 이는 정양사라는 공간을 신선 세계로 언급한 것이다. 결구는 萬瀑洞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백하가 이별에 처해 진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백하가 금강산 내금강의 장안사와 정양사를 거쳐, 만폭동으로 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작품(2)는 정양사 앞에 펼쳐진 풍경을 읊은 것인데, 기구와 승구에서는 안개와 구름이 자욱한 광경만을 포착함으로써 금강산의 감춰진 진면목을 그려내고 있다. 이 시에서는 백하가 유람 공간을 직접적으로 신선 세계라고 언급한 바 없으나, 안개와 구름 속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금강산은 그 자체로 몽환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어서 전구와 결구는 아득한 풍경 속에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배제된 채 청각적인 이미지만이 지배하고 있는데, 백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을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백하는 자신이 정양사에 앉아 있는 것도 잊은 채 바다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든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정양사 그리고 금강산을 그려내지 않았으나 空界의 경지를 읊어 이 공간을 신선 세계로 환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永述經仙客　영랑 술랑 신선이 지나갔으니
湖豈此世寰　어찌 이곳을 속세라고 하겠는가
緣何淸分福　무슨 연고로 맑은 복을 나누어
坐我此中間　내가 앉아 있는 이 가운데 두었나
孤島簷楹泛　외로운 섬 처마 밑 기둥에 떠 있는 듯한데

纖波風日閑　바람 한가로우니 물결 잔잔하네
輕舟從小往　좁은 길 따라 가벼운 배 지나가고
流在白蘋灣　흰 꽃 핀 부평초 굽이 따라 흐르네[48]

이 작품은 <三日浦>인데, 실제로 삼일포는 예전에 四仙이 이곳에서 놀다가 삼일 동안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된 바 있으므로[49] 백하의 작품에서도 이 공간 전체가 신선 세계로 묘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먼저 수련을 보면, 四仙으로 대별되는 述郎·南郎·永郎·安祥 가운데 영랑과 술랑을 읊은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놀며 구경했던 공간인 삼일포는 속세가 아니라고 언급함으로써 신선 세계로 환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함련에서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을 맑은 복이 깃든 곳으로 언급함으로써 삼일포라는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담아냈다. 다음으로 경련에서는 삼일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섬, 그리고 그 안에 자리한 四仙亭을 담아내는 동시에 잔잔한 바람 따라 잔물결이 치는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미련 역시 삼일포에 떠 있는 배를 그려낸 것인데, 여기에서는 하얗게 꽃을 피운 부평초 굽이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시에 포진시켰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백하가 금강산을 유람하며 이 공간을 신선 세계로 인식하는 동시에 신선 세계로 환치시켜 시에 포진시켜 둔 양상을 확인하였다. 백하의 경우 여타 山水 공간에서 '仙山'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백하가 금강산을 다른 공간과 구분지었으며 이 공간만을 신선 세계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작품을 보면, 金剛山의 金剛이 『華嚴經』에서 비롯되었다고 논하고[50] 금강산의 봉

48) 尹淳, 『白下集』 卷1, <三日浦>.
49) 安軸, 『謹齋集』 卷1, <三日浦詩 幷序>, "昔四仙遊此而三日不還, 故得是名."

우리들이 『화엄경』에서 언급한 일만 이천 보살의 化身이라고 여김에 따라[51] 금강산을 재현된 佛國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52] 윤순의 경우 작품에서 그와 같은 면모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모든 작품에서 오로지 금강산을 신선 세계로 환치시켰다는 점은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라고 하겠다. 종합해보았을 때, 백하가 인식한 금강산이라는 산수 공간은 속세 즉 인간 세계와는 달리 신비롭고 몽환적인 신선 세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다.

2. 同遊 체험 공간으로서의 俗離山과 시적 형상화

이 장에서는 俗離山이라는 시적 공간을 살피고자 하는데, 속리산은 '小金剛山' 또는 '小金剛'이라고 지칭될 만큼 名山으로 알려진 곳이다.[53] 그에 따라 속리산을 유람한 문인들이 조선 전기부터 등장했으며,[54] 遊山詩와 遊山記 창작이 함께 이루어졌다. 백하 역시 1716년 속리산을 유람했으며, 유산기는 없으나 여러 편의 유산시를 남겼다. 그중에서도 특징적인 양상은 백하가 유람한 속리산이 同遊 체험 공간으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백하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피되, 동시기 백하와 同遊한 澹軒 李夏坤(1677~1724)의 작품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속리산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창작된 유산기·유산시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

50) 李穀, 『東文選』 卷118, 「金剛山長安寺重興碑」, "實載之佛書. 其華嚴所說東北海中, 有金剛山, 曇無竭菩薩, 與一萬二千菩薩, 常說般若者是已."

51) 金澤榮, 『韶濩堂集』 卷2, 「五名山記 韓國文集叢刊」, "遂擧菩薩之數, 以爲峰數曰 是峰也卽, 是菩薩之化身也."

52) 박은정, 「근대 이전 漢文 記錄을 통해 본 金剛山 表象」, 『동아시아문화연구』 54,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210~213쪽.

53) 김용남, 「속리산 遊山詩에 나타난 속리산의 공간 인식」, 『한국사상과 문화』 61, 한국사상문화학, 2012, 31쪽.

54) 조선 전기에는 蔡壽(1449~1515), 金淨(1486~1521), 徐敬德(1489~1546), 成運(1497~1579) 등이 속리산을 유람하고 遊山詩를 창작하였다.(김용남, 「속리산 遊山詩에 나타난 속리산의 공간 인식」, 『한국사상과 문화』 61, 한국사상문화학, 2012, 29~49쪽. 참조.)

이므로[55]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속리산 소재 유산시 분석은 의미있는 연구가 되리라 여긴다. 또한 백하의 石印本『白下集』에 수록된 속리산 유람시가 대체로 주요 사찰들이나 승려와의 기록을 담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世外如緣在　세상 밖에 인연이 있으니
塵中萬事閒　풍진 속에서도 만사가 한가롭네
袖携工部律　소매 가득 두보의 시 넣고
秋入俗離山　가을에 속리산에 들어가네
霧崱高標立　안개 낀 산봉우리 높은 풍도로 우뚝 서 있고
霜林泉色斑　서리 맞은 숲 샘물에 아롱지네
村煙谷谷好　마을 연기 피는 골짜기마다 좋으니
長往欲無還　멀리 떠나 돌아갈 생각이 없구나[56]

이 작품은 <新峙, 丙申九月, 自常山縣衙, 約澹軒李載大, 同入俗離山, 李生垕坤從焉>으로, 시제를 통해 백하가 1716년에 澹軒 李夏坤과 함께 속리산에 들어가기로 약속하여 유람을 떠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련은 속세 밖에 인연이 있으니 속세에 머물면서도 모든 일이 한가롭다고 읊은 것으로 속리산에 들어가는 감회를 말한 것이다. 함련은 가을날 소매 가득 주옥같은 두보의 시를 넣고 속리산에 들어간다고 표현한 것인데, 이를

55) 속리산을 대상으로 창작된 유산기는 김용남, 김미선의 선행연구를 통해 20편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유산시 연구도 이뤄진 바 있으나 특정 문인 몇 명을 중심으로 한 연구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김용남,「속리산 遊山詩에 나타난 속리산의 공간 인식」,『한국사상과 문화』61, 한국사상문화학, 2012, 29~49쪽; 김동석,「문인들이 그려낸 속리산」,『동방한문학』53, 동방한문학회, 2012, 31~54쪽; 김미선,「선비의 俗離山 遊山詩 고찰 -沖庵·大谷·壺山의 작품을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91, 한국사상문화학회, 2018, 59~83쪽; 김미란,「조선후기 속리산 유산기에 나타난 유람의 양상과 의미」,『한국문학과 예술』29,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9, 131~173쪽.)

56) 尹淳,『白下集』卷1, <新峙, 丙申九月, 自常山縣衙, 約澹軒李載大, 同入俗離山, 李生垕坤從焉>.

통해 속리산이 시 창작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련은 속리산의 모습을 담아낸 것인데, 안개 자욱한 곳에 우뚝하게 높이 솟은 산봉우리를 읊는 동시에 서리 맞은 숲을 포착한 것이다. 미련에 이르면, 백하는 이곳이 좋아서 돌아갈 생각을 잊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속리산 유람의 흥취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작품 분석에 앞서 백하와 同遊한 담헌의 문집『頭陀草』「俗離錄」에 수록된 次韻詩 작품을 개관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백하의 문집 石印本『白下集』과 담헌의 문집『頭陀草』「俗離錄」을 대조해 보면,『白下集』에 실리지 않은 작품도 확인되므로 두 문집에 수록된 작품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다.「俗離錄」에는 이들이 함께 유람하며 서로의 작품에 차운한 次韻詩가 다수 남아있어 同遊 체험 공간으로서의 俗離山과 시적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기 적합하다고 하겠다.

<표 3>『頭陀草』「俗離錄」 수록 次韻詩 현황

순번	澹軒 李夏坤의 차운시 작품명		순번	澹軒 李夏坤의 차운시 작품명	
1	次韋軒贈仲和韻	위헌이 중화 윤순에게 준 시에 차운하다	6	飛來峰次仲和韻	비래봉에서 중화 윤순의 시에 차운하다
2	仲和冒雪見過, 賦示一絶, 依韻答之	중화 윤순이 눈을 무릅쓰고 찾아와 절구 한 수를 지어 보여주므로 운에 맞춰 지어 답하다	7	多碧洞次仲和韻	다벽동에서 중화 윤순의 운자에 맞춰 짓다
3	又次賒字邀仲和	또 사 자를 차운하여 중화 윤순을 초대하다	8	空林寺次仲和韻	공림사에서 중화 윤순의 운자에 맞춰 짓다
4	入俗離, 次仲和韻	속리산으로 들어가며 중화 윤순의 운자에 맞춰 짓다	9	白蓮庵, 次仲和贈瑛師韻	백련암에서 중화 윤순이 영사에게 준 시를 차운하다
5	沙潭次仲和韻	사담에서 중화 윤순의 운자에 맞춰 짓다	10	法住寺, 次仲和韻	법주사에서 중화 윤순의 운자에 차운하다

순번	澹軒 李夏坤의 차운시 작품명		순번	澹軒 李夏坤의 차운시 작품명	
11	又次仲和韻	또 중화 윤순의 운자에 맞춰 짓다	17	中獅子庵, 次仲和魚字	중사자암에서 중화 윤순의 어 자 운에 맞춰 짓다
12	入福泉, 用去秋催字示仲和	복천사로 들어가며 지난 가을의 최 자 운을 사용하여 지어 중화 윤순에게 보여 주다	18	次中(仲)和中字	중화 윤순의 중 자에 맞춰 짓다
13	九日次仲和韻	중양절에 중화 윤순의 시에 차운하다	19	仙遊洞次仲和韻	선유동에서 중화 윤순의 운에 맞춰 짓다
14	曉起次仲和韻走草	새벽에 일어나 중화 윤순의 시에 차운하다	20	次仲和詠船岩韻戲反其意	중화 윤순이 선암을 읊은 시에 차운하면서 재미 삼아 그 뜻을 뒤집다
15	次仲和豪字	중화 윤순의 호 자에 맞춰 짓다	21	煥章庵次仲和韻	환장암에서 중화 윤순의 운에 맞춰 짓다
16	次仲和尋字	중화 윤순의 심 자에 맞춰 짓다			

이에 담헌의 문집『頭陀草』「俗離錄」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백하의 작품에 차운한 次韻詩를 정리하면 <표 3>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백하와 담헌은 속리산이라는 유람 공간에서 서로 차운시를 창작함으로써 시적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본적으로 백하의 작품을 다루면서 해당 시에 차운한 담헌의 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논하도록 하겠다.

(1)

夜向西庵借榻眠　밤들자 서암으로 가서 침상 빌려 잠드니

虛簷風鐸韻冷然　빈 처마의 풍경 소리 맑고 시원하네

燈前老宿眉如雪　등불 앞 노승의 눈썹 눈처럼 하얀데

坐說堦東種柿年　동쪽 섬돌에 앉으니 감나무 씨 뿌릴 때이네[57]

(2)

獨對高僧自不眠　고승과 마주하고 잠 못 드는데

紙囪燈火靜蕭然　종이 창 아래 등불이 고요히 깜박이네

夜深坐聽簷鈴語　깊은 밤에 앉아서 처마의 풍경 소리 듣고 있는데

記得前遊已十年　지난번 유람은 벌써 십 년이나 지났구나[58]

작품(1)은 백하가 창작한 <白蓮菴 贈瑛師>로 백련암에서 백하가 瑛師에게 준 시이고, 작품(2)는 담헌이 백련암에서 백하가 영사에게 준 시에 차운한 것이다. 시제에 등장하는 瑛師는 『頭陀草』「俗離錄」에 자주 등장하는 승려로 추정되는데,[59] 확실히 고증하기는 어렵다. 작품을 살펴보면, 모두 속리산 백련사라는 사찰을 중심으로 시가 창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백하의 작품 (1)은 속리산 유람 중에 백련암에서 머물며 사찰의 풍경을 담아낸 것인데, 기구, 승구에서는 처마에서 울리는 풍경 소리인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맑은 사찰의 이미지를 그려냈다. 전구에는 등불 앞 노승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결구에서는 당시 가을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작품(2) 역시 같은 공간에서 백하의 원운시를 활용해 창작했기에 비슷한 풍경이 시에 포진되어 있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등불 앞에서 고승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으며 전구에서도 깊은 밤 풍경 소리를 듣고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결구에 이르면 담헌이 지난 유람을 회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지난번 유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담헌은 이전에 백련암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 창작된 작품 <宿白蓮菴>[60]이 문집에 남아

57) 尹淳, 『白下集』 卷1, <白蓮菴 贈瑛師>.
58) 李夏坤, 『頭陀草』 6冊, 「俗離錄」, <白蓮庵 次仲和贈瑛師韻>.
59) 李夏坤, 『頭陀草』 1冊, <贈瑛師>. 『頭陀草』 2冊, 「俗離錄」, <贈瑛師>, <雨中過瑛師房>.
60) 李夏坤, 『頭陀草』 2冊, 「俗離錄」, <宿白蓮菴>, "白蓮菴子小, 深夜一燈懸. 窓映杉梢月, 衾寒石竇泉. 有時孤磬發, 獨對老僧眠. 東院經聲歇, 松風與寂然."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두 작품은 모두 속리산을 유람하며 백련사 사찰에서의 감회를 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적 소통 면에서 이들은 같은 운자를 활용해 원운시의 시상을 가져왔는데 담헌이 백하의 작품을 원운시로 삼는 동시에 백련사의 이미지를 차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同遊 체험 공간으로서의 俗離山과 시적 형상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겠다.

(1)

結構何精麗　얽어 만든 것이 어찌나 정교하고 아름다운가
諸庵視此低　여러 암자 낮게 보이네
時巡元在外　원래 밖으로 주기적으로 순행하였으니
左敎豈尊西　불교가 어찌 서학을 따른 것이겠는가
文陋乖崖記　비루한 문장으로 김수온이 기록하였고
書珍匪懈題　진중한 글로 안평대군이 제하였네
悄然今古意　고금을 생각하노니 슬퍼지는데
秋色與凄凄　가을빛도 처량하네[61]

(2)

秋宿千峰頂　가을날 일천 봉우리 정상에서 묵으니
星河入戶低　은하수가 문 안으로 들어오네
泉鳴石竇下　샘물은 바위 구멍 아래에서 울리고
月懸杉木西　달은 삼나무 숲 서쪽에 걸렸구나
僧壁憐新潔　승려의 방 새로 단장하여 좋으니
經囪覓舊題　불경 읽는 창 아래에서 옛 시를 찾는구나
夜深淸不睡　밤 깊어도 정신 맑아 잠들지 못하는데
霜氣更凄凄　서리 기운이 더욱 차갑네[62]

61) 尹淳, 『白下集』 卷1, <次李載大韻>.

위 인용시는 俗離山의 福泉庵을 시적 공간으로 삼아 창작된 것으로, 작품(1)은 백하가 담헌의 시에 차운한 <次李載大韻>이며, 작품(2)는 담헌의 원운시 <福泉僧房夜坐>로, 담헌이 福泉寺 승방에서 밤에 앉아 있다가 지은 것이다. 복천암은 속리산의 주요 사찰이자, 고려시대 공민왕, 조선시대 태종·세종·세조가 주필한 공간이므로 이와 관련해 다양한 기록이 남아있다는[63] 점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백하가 창작한 작품(1)을 살펴보면, 수련은 속리산 복천암의 아름다운 경관을 묘사한 것이며 다음으로 함련에 이르면 백하가 불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백하가 불교와 서학을 구분함으로써 불교를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련에서는 복천암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담아낸 것인데, 金守溫(1409~1481)과 安平大君을 언급해 역대 제왕들의 주필을 언급하는 동시에 이 일을 김수온이 기록하였음을 말한 것이다.[64] 다음으로 담헌의 원운시 작품(2)를 살펴보면, 시간적으로는 밤에, 그리고 복천사 승방이라는 공간에서 창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구와 승구는 복천사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읊은 것인데,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이 느껴지는 산 정상에서 묵으며 샘물 소리를 듣고 달빛을 바라보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전구에서는 담헌이 복천사 승방에서 울려 퍼지는 불경 소리를 들으며 옛 시를 찾는 동시에 작품을 창작했음을 볼 수 있다. 결구에서는 깊은 가을밤 서리 내린 이곳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62) 李夏坤, 『頭陀草』 6冊, 「俗離錄」, <福泉僧房夜坐>.

63) 김미란, 「조선후기 속리산 유산기에 나타난 유람의 양상과 의미」, 『한국문학과 예술』 29,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9, 161쪽.

64) 吳再挺, 『寒泉堂遺稿』 2卷, 「遊俗離山錄」, "泉上巖面, 刻福泉二大字, 塡以朱也. 礎砌垣墻堅完, 研美有若王者所居, 惠莊大王所重新, 而聖躅獻香之地也. 給田藏獲以爲常任香火之資, 至今猶存焉, 大庵老衲爲余道之. 閱其舊物則有袈裟禪衣各一襲, 亦光廟手賜信眉之物也, 其紋繡之燦爛經理之篤厚, 曾所未見. 又有御札三片, 而片末, 列書云, 某年月日, 同行朝鮮國王慈聖王妃殿下中宮殿下, 皆著圖書. 又有列聖御筆, 及東方名筆各若干字, 刊印藏之於此, 以爲傳久之圖, 蓋朗善君所爲也. 又有記事冊子, 乖崖金守溫奉敎記三殿親臨時盛擧也."

데, 이는 백하의 차운시와도 시상을 같이한다.

夜起千峯月　밤들자 일천 봉우리에 달이 뜨니
微茫下界分　아득히 인간 세계와 구별되네
虛窓杉影度　빈 창에는 삼나무 그림자 비치는 듯하고
深室篆香聞　깊은 방에는 향 연기가 나는 듯하구나
宿處疑非世　묵는 곳 속세 아닌 듯 의심스러운데
身邊但有雲　몸 주변에는 다만 구름이 있구나
奇巖看似佛　기이한 바위는 부처인 듯하고
渾欲聽經文　혼연히 불경을 듣는 듯하구나[65]

이 시는 백하가 창작한 작품인 <示李載大>으로, 기본적으로 백하가 담헌에게 보여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同遊 과정에서 작시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이 작품은 백하가 속리산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동시에 속리산이라는 공간을 속세에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운 곳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를 감상해보면, 수련은 온 봉우리에 달이 뜬 풍경을 담아내며 이러한 경치가 인간 세계와 구별됨을 언급한 것이다. 함련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담아낸 것인데 빈 창에 삼나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깊은 방에는 향 향기가 나는 광경을 떠올리게 한다. 경련에 이르면 백하는 자신이 묵고 있는 곳이 속세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온통 구름만이 감싸고 있는 이 공간의 묘한 분위기를 시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이에 미련에서는 기이한 바위들이 부처인가 의심하고, 혼연히 불경을 듣는 듯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속리산 전체를 佛界로까지 환치시키고 있다.

65) 尹淳, 『白下集』 1, <示李載大>.

이렇게 본다면 백하는 속리산의 사찰들을 두루 유람하며 속리산을 佛界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 이외에도 俗離山의 淸凉窟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백하가 창작한 <淸凉窟 又次李載大韻>[66]과 담헌이 창작한 원운시 <淸凉窟>[67] 작품에서도 속리산은 속세 밖의 공간이자 불교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백하와 담헌이 시적으로 같은 시상을 공유하며 소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속리산은 同遊 체험 공간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속리산 유람의 경우 좀 큰 틀에서 논의해보자면, 백하와 동행한 담헌이 三淵 金昌翕(1653~1722)과 農巖 金昌協(1651~1708)의 문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유람 양상은 이들과의 영향 관계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산수 유람은 삼연과 농암에 의해 18세기 전반기 유행의 한 양상으로 자리 잡게 되므로[68] 이들의 속리산 同遊 체험은 당시 유람의 한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3. 관직 사직 후, 은둔의 공간 白鶴山

이 장에서는 1723년 백하가 머물렀던 공간인 白鶴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공간과 달리 관직 사직이라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머물게 된 隱遁[69]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당시 백하

66) 尹淳, 『白下集』 卷1, <淸凉窟 又次李載大韻>.
67) 李夏坤, 『頭陀草』 6冊, 「俗離錄」, <淸凉窟>.
68) 윤재환, 「옥동 이서의 금강산 기행시문 연구 -동유록과 동유편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21, 대동한문학회, 2004, 105쪽.
69) 隱居, 隱遁, 隱逸, 逸民, 隱者, 隱士 등의 용어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이념을 지키기 위해 官界나 政界로부터 逸脫했던 인물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경수, 「18세기 초 문인의 은둔 자적 생애와 시적 표현」,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7쪽.) 백하의 경우 작품을 살펴보면 隱居하는 생활에 대한 한적함보다는 현실에 대한 고뇌가 시상을 지배하고 있기에 隱居라는 용어 대신 隱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는 1723년 가을 朴徵賓의 탄핵을 받고 사직한 뒤 長湍 白鶴山으로 가서 세상에 나올 뜻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70] 특징적인 양상으로는 관직 사직이라는 동기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은둔이고, 9월 사직 이후에 바로 10월에 관직에 제수되었으므로[71] 백학산에 머문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에 따라 이 당시 창작된 한시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백하의 호가 白下인[72] 만큼 이 백학산은 백하에게 의미있는 공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백하가 백학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 兼文學 尹淳이 疏를 올려 사직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臣이 당한 罔極한 일은 書冊에도 없는 것입니다. 窮奇·檮杌의 지목에다 천고의 악인을 합쳐도 오히려 부족하여, 심지어 先臣이 李師命을 논박한 것까지 신에게 덮어씌우니, 마음과 몸이 모두 괴로워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善類에게 禍를 전가시켜서 王室에 害를 끼쳤다는 등의 말은 急書와 같은데, 말한 이가 반드시 신을 지목할 수는 없는 것이나 만약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옳다면 바로 뜬소문을 가지고 不測한 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朴徵賓 한 사람뿐만이 아닐 것이니, 아, 또한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 밖에 교묘하게 무함한 것이 지극한 죄 아님이 없으니 신으로서는 변명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변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廢人이 된 자가 어찌 변명을 일삼겠습니까? 오직 세상에 자취를 감추고 한평생 동안 허물을 반성하며 廉恥나 보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대간이 한 말을 너무 지나치게 혐의할 필

70) 尹淳, 『白下集』 附錄, 「行狀」, "九月, 徵賓還, 爲掌令, 對疏誣辱倍屣, 並斥金公, 是亦一鏡指使也. 公大歸于長湍白鶴山下, 日與學徒講習, 無復出世意."

71) 尹淳, 『白下集』 附錄, 「行狀」, "十月, 復兼文學, 陞弘文舘應敎, 又疏辨徵賓誣."

72) 筆寫本인 『白下先生遺稿』 6권에 수록된 <鶴城偶吟>이라는 작품 말미에 "鶴山 아래에서 鶴谿이라고 自號했다."라는 내용일 부기되어 있음을 미루어 보았을 때, "白下"라는 號 역시 白鶴山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생각된다.

요가 없다. 그대는 너무 사양하지 말라."라고 하였다.[73]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인용문인 『景宗實錄』에 수록된 <경종 3년 4월 23일 임신 2번째 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내용을 확인하면, 백하가 朴徵賓 뿐만 아니라 여러 이들의 모함으로 인해 疏를 올려 사직하기를 청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백하가 세상에 자취를 감추고 한평생 동안 허물을 반성하며 廉恥나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을 보았을 때, 白鶴山은 백하에게 있어 은둔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백하가 백학산에서 창작한 한시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의미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白鶴山前屋　백학산 아래 집을 지으니
殘年自在心　남은 세월이 마음에 달려있구나
凉眠巖樹倚　바위 나무에 기대어 쓸쓸하게 잠들고
孤往磵雲尋　개울가 구름을 찾으며 홀로 다니는구나
世遠難求道　세대 멀어지니 도를 구하기 어렵고
人亡不鼓琴　사람 없어졌으니 거문고를 타지 않네
茫茫宇宙內　아득한 우주 속에서
誰復賞吾音　누가 다시 나의 소리를 알아주겠는가[74]

이 작품은 백학산 아래에서 거처하며 쓴 <結屋白鶴山下>로, 당시 백하가

73) 『景宗實錄』 12권, <경종 3년 4월 23일 임신 2번째 기사>, "兼文學尹淳, 陳疏辭職. 略曰, "臣所遭之罔極, 載籍所無. 窮奇·檮杌之目, 合千古而猶不足, 至以先臣之論卹命者, 反施於臣身, 心骨俱痛, 寧欲無言. 又況嫁禍善類, 貽害王室等語, 便同急書. 言者必不能目於臣, 苟其耳於人者是, 則欲以蜚語, 陷之不測, 不但朴徵賓一人, 吁亦危矣. 其他深搆巧捏, 罔非極罪, 在臣不必求辨. 藉曰可辨, 已廢之人, 又何事於辨. 惟當收影滅跡, 沒身省愆, 以存廉恥之防." 上答曰, "臺言不必爲嫌. 爾勿過辭."

74) 尹淳, 『白下集』 1, <結屋白鶴山下>.

백학산이라는 산수 공간에서 느꼈던 감회를 읽어낼 수 있다. 우선 수련에서는 당시 백하가 백학산 아래 집을 짓고 머물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남은 세월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표현을 통해서는 현재 속세에서 빗겨나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함련에는 백하의 심경이 표현되어 있는데, '凉眠', '孤往'라는 시어에서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를 포착할 수 있다. 경련과 미련에 이르면 이러한 감정이 증폭됨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동시에 伯牙와 鍾子期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백학산은 백하만의 공간이었던 동시에 타의에 의해 이뤄진 은둔이라는 점에서 은일의 한적함이나 기쁨보다는 현실에 대한 고뇌가 시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겠다.

舊隱衡門倚白霞　형문에서 오래도록 은거하며 백하주에 의지하고
來泉水活客還家　물이 흘러 샘이 되는 곳에 객이 집으로 돌아오네
城西小院猶秋夢　성 서쪽 작은 뜰 오히려 가을 꿈 같은데
種菊三年不見花　삼 년 전 심은 국화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구나[75]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歸白下>로, 백학산에서 창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구를 통해서는 단적으로 '衡門'이라는 시어를 통해 백하가 백학산을 隱者의 거처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衡門'은 주로 安分自足하는 삶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해 『詩經』「衡門」에 "형문 아래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구나(衡門之下, 可以棲遲)"라는 구절이 보인다. 또 백하는 술 빛이 흰 노을과 같다고 한 데서 명명된 白霞酒에 의지하며 이곳에 거처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승구에는 백하가 머무른 공간이 형상화되어 있다. 전구와 결구에 이르면, 조정에서의 삶을 가을 꿈에 비유하는 동시에 삼 년 전

75) 尹淳, 『白下集』 1, <歸白下>.

심은 국화가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언급하여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하였다. 이 작품 역시 백학산을 은자의 공간으로 상정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미련과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萬事浮雲閱變遷　뜬구름 같은 세상만사 세월의 변천을 보고 있는데
梗蓬身世又新年　부평초 같은 신세로 또 새해를 맞는구나
村烟野靄日初永　해 길어지자 마을에는 연기 피고 들에는 아지랑이 이는데
柳眼蒲芽春可憐　봄은 어여뻐 버들눈 돋아나고 부들에는 싹이나네
客榻無端驚逝水　객탑에 흐르는 물에 까닭 없이 놀라는데
山家有待復來泉　산속 집에서 다시 기다리니 흐르는 냇물이 되었구나
瓢亡鼎缺關心事　대그릇 비고 솥 잃는 것에 관심을 두니
恨未消磨火食緣　세속에서 화식하는 연이 사라져 버린 것 한스럽구나[76]

이 시는 산 아래로 돌아와 年字에 疊韻하여 감회를 적은 작품이다. 시제에 "歸山下"라고 되어있어 정확히 시적 공간이 백학산이라고 고증하기는 어려우나, 이 작품을 전후로 하여 백학산에 머물던 시기에 창작된 시가 보이므로 같은 공간에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직에서 물러나 산 아래에서 거주하며 느끼는 감회를 읊었기에 백학산에서 지내는 동안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먼저 수련을 통해 백하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부평초에 비유하여 정처 없이 떠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일이 뜬구름 같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속세를 바라보는 백하의 시선을 느낄 수 있겠다. 함련에 이르면 백학산에 거주하며 바라본 주변 풍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마을의 모습, 그리고 봄 들자 돋아나는 버들과 버들 싹을 포착

76) 尹淳, 『白下集』 1, <歸山下, 疊年字志感, 上伯氏>.

한 것이다. 경련에서 '客榻'이라는 손님 접대용의 걸상이 시어로 등장하는데, 손님이나 아는 이가 오지 않는 공간에서 자연 경물에 해당하는 물이 흘러 냇물이 되는 광경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련에 이르면, 백하가 한 대그릇 밥조차 비고, 솥으로 대변되는 국가 공신이 누리는 모든 부귀를 잃어버린 상황을 언급하는 동시에 세속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버린 버린 지금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이 작품에서도 백하는 백학산을 속세와 떨어진 공간으로 상정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미련을 표출하고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해 토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VI. 맺음말

이 글은 白下 尹淳의 山水詩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백하가 지니고 있던 산수 공간 인식과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백하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백하는 주로 서예가로서의 면모만이 부각되었는데, 최근 백하의 문집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시문학 세계를 살피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필자는 백하의 시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공간이 산수 공간이며 3곳으로 대별됨을 확인하고, 산수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먼저 2장에서는 백하의 삶과 산수시를 개관하였는데 백하가 평생에 걸쳐 수많은 관직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의 생애에 따른 관직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기별로 백하가 머물렀던 산수 공간을 나열해보고자 하였다. 백하의 문집 검토가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이루어졌으므로 이 글에서는 石印本『白下集』에 수록된 산수시만을 추출함으로써 작시 공간을 분류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백하의 산수 공간 인식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첫 번째로는 백하가 1715년에 방문한 金剛山이라는 공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다만 한시만이 남아있을 뿐 유람과 관련하여 遊山記 형식의 별도의 산문이 남아있지 않아 유람 동기와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한시 작품을 통해 산수 공간 인식 양상을 유추해보았다. 조선시대의 금강산 유람은 당시 성행했던 보편적인 유람 양상 중 하나인데, 그중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찾아보자면 백하가 금강산을 신선 세계로 인식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여타 산수시에서는 이와 같은 양상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므로 백하가 유독 금강산이라는 공간만을 '仙山'으로 인식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同遊 체험 공간으로서의 俗離山과 시적 형상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백하는 1716년 속리산을 유람했으며 여러 편의 유산시를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특징적인 양상은 백하가 유람한 속리산이 同遊 체험 공간으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백하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피되, 동시기 백하와 同遊한 澹軒 李夏坤(1677~1724)의 작품을 함께 분석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백하의 작품들 대다수가 주요 사찰들이나 승려와의 기록이라는 점이며, 작품에 佛界에 대한 묘사가 되어있다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속리산 유람의 경우 좀 큰 틀에서 논의해보자면, 백하와 동행한 담헌이 三淵 金昌翕(1653~1722)과 農巖 金昌協(1651~1708)의 문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유람 양상은 이들과의 영향 관계 속에서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수 유람은 삼연과 농암에 의해 18세기 전반기 유행의 한 양상으로 자리 잡게 되므로 이들의 속리산 同遊 체험은 유람의 한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관직 사직 후, 은둔의 공간으로의 白鶴山을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백하는 1723년 탄핵을 받고 사직한 뒤 백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공간과 달리 관직 사직이라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머물게 된 은둔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당시 백하는 1723년 가을

朴徵賓의 탄핵을 받고 사직한 뒤 長湍 白鶴山으로 가서 세상에 나올 뜻을 가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특징적인 점으로는 관직 사직이라는 동기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은거이고, 9월 사직 이후에 바로 10월에 관직에 제수되었으므로 백학산에 머문 기간이 짧았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이 당시 창작된 한시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백하의 호가 白下인 만큼 이 백학산은 백하에게 의미있는 공간이었음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백하는 백학산을 은자의 공간으로 상정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미련을 표출하고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해 토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합해보면, 이 글은 백하의 삶에서 의미있는 3곳의 산수 공간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산수시의 특성상 산수 문예 의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金剛山·俗離山에서 창작된 산수시의 경우 순수한 유람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 산수시와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하겠다.[77] 나아가 白鶴山의 경우 그의 삶과 시문학 세계의 한 부분을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 글에서는 石印本『白下集』에 수록된 산수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추후 筆寫本『白下先生遺稿』와 石印本『白下集』을 대조·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筆寫本『白下先生遺稿』에 수록된 백하의 작품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문집 가운데 산수시만을 추출하여 이 글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또 다른 지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이에 이번 글은 백하의 시세계 중에서도 산수 공간을 면밀하게 밝히는 첫 번째 연구이므로, 두 문집에 수록된 산수시를 비교 검토하는 연구는 다음 논문을 통해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77) 백하가 택한 산수 공간이 개인 수양을 위한 방편이 아닌 순수한 유람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 산수시와 차별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尹淳,『白下集』, 한국문집총간 192권.

李夏坤,『頭陀草』, 한국문집총간 191권.

李夏坤 作·정만호 외 2 譯,『頭陀草』,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2018.

『肅宗實錄』,『景宗實錄』,『英祖實錄』 https://sillok.history.go.kr/

김서형,「白下 尹淳 書藝美學의 批評的 考察」,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동석,「문인들이 그려낸 속리산」,『동방한문학』53, 동방한문학회, 2012.

김미란,「조선후기 속리산 유산기에 나타난 유람의 양상과 의미」,『한국문학과 예술』29,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9.

김미선,「선비의 俗離山 遊山詩 고찰 -冲庵·大谷·壺山의 작품을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91, 한국사상문화학회, 2018.

김용남,「속리산 遊山詩에 나타난 속리산의 공간 인식」,『한국사상과 문화』61, 한국사상문화학, 2012.

남재철,「自然詩의 意味와 韓國에서의 展開樣相」,『동방한문학』33, 동방한문학회, 2007.

류소애,「백하 윤순의 서예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문정자,「白下 尹淳과 圓嶠 李匡師의 審美理想과 書藝術」,『東洋學』4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8.

박명숙,「白下 尹淳 書藝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은정,「근대 이전 漢文 記錄을 통해 본 金剛山 表象」,『동아시아문화연구』54,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손왕호,「白下 尹淳 硏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심경호,「한국한시와 금강산 ; 조선후기 문인의 동류 체험과 한시」,『한국한시연

구』 6, 한국한시학회, 1998.

윤재환, 「옥동 이서의 금강산 기행시문 연구 -동유록과 동유편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21, 대동한문학회, 2004.

_____, 「백하 윤순 문집 검토 -『백하선생유고』와 『백하집』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62, 동양한문학회, 2022.

이경수, 「18세기 초 문인의 은둔자적 생애와 시적 표현」,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이완우, 「白下 尹淳과 中國書法」, 『美術史學硏究』 206, 한국미술사학회, 1995.

이재남, 「白下 尹淳의 書藝美學思想 考察」,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장순영, 「白下 尹淳 書藝術 硏究」,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전복희, 「白下 尹淳 書藝術의 審美思想 硏究」,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장지훈, 「尹淳의 心學的 서예미학에 관한 연구」, 『儒學硏究』 2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0.

정치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 중의 활동」, 『역사민속학』 4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조민환, 「백하 윤순의 서예미학에 관한 연구 -時體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3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한정길, 「白下 尹淳의 경세론에 나타난 양명학적 사유」, 『泰東古典硏究』 3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3.

<Abstract>

The Recognition and Meaning of Landscape Poems by Baekha(白下) Yoon soon(尹淳)

Kim, Myo-jung

This article was designed to clarify the perception of the Landscape space and its meaning, using the Landscape Poems of Baekha(白下) Yoon soon(尹淳, 1680~1741) under Baekha as the subject of the study. The reason why the discussion was conducted by classifying it as a Landscape space is that first of all, Baekha's three most meaningful spaces in the city world are largely divided, and all of them are linked to Landscape.

First, in Chapter 2, the life of Baekha(白下) and the Landscape Poems(山水詩) were outlined, and the Landscape Poems were classified by space to understand the Landscape Poems of Baekha in three dimensions. Subsequently, Chapter 3 attempted to clarify the aspect of Baekha's perception of Landscape space and its meaning. Therefore, first, I tried to pay attention to the space called Kunkang Mountain(金剛山), which Baekha visited in 1715. The tour of Kunkang Mountain in the Joseon Dynasty was one of the popular tourist patterns at the time, and the characteristic aspect is that Baekha recognized Kunkang

Mountain as a Immortal World. This pattern is not confirmed in other Landscape Poems, and it is meaningful that only the space called Kunkang Mountain was expressed as a Immortal World.

Second, we tried to check Songnisan Mountain(俗離山) and the poetic shape as a space to cruise together(同遊). Baekha(白下) toured Songnisan in 1716, leaving several Yusansi(遊山詩), one of the most distinctive aspects of which is that it is a space for Songnisan, where Baekha has toured, to explore together. Here, we will focus on Baekha's works, but Damheon(澹軒) Lee Ha gon(李夏坤, 1677~1724), who toured with Baekha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content, it was confirmed that records with major temples and monks were mainly occupied, and that the work was described as Buddism World(佛界).

Third, after resigning from office, I tried to illuminate Baekhaksan Mountain(白鶴山) as a space of hermit(隱遁). Since Baekha(白下) was impeached in 1723 and resigned, he entered Baekhaksan, and at that time, in conjunction with Baekha's situation, he sought to find the special meaning of the space Baekhaksan. As his name is Baekha(白下), he revealed that this space is a short period of time in his life, but it is a special meaning.

This article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in-depth the three Landscape spaces that have meaning in Baekha's life to understand the aspect of Landscape space recognition, while also examining how Landscape literary consciousness is expressed. Furthermore, it is thought that it will help to understand a part of the world of Baekha's poetry and at the same time to grasp literary ability.

Key words : Baekha(白下) Yoon soon(尹淳), Landscape Poems(山水詩), space(空間), Kunkang Mountain(金剛山), Songnisan Mountain(俗離山), Baekhaksan Mountain(白鶴山)

김묘정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조교수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152 단국대학교 상경관 319호
전자우편: 88131momo@naver.com

이 논문은 2022년 9월 19일 투고되어 2022년 10월 22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10월 22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